

미래대응기금 사업 선정기준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부가 아니며, 미래를 여는 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 보도내용 >

- 2026.9.17.(목) 경향신문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사업’…재정 안정 ‘비상금 역할’ 퇴색」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이라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고,
 -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은 사업”도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입장 >

【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계속사업은 잠재성장을 제고와 성장 과실 확산에 필요한 사업이며, '27년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서 NEXT 원칙*에 부합하고, 추가세수를 통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 * ① (N: New-Capital) 인적·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
② (E: Enterprising)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③ (X: fleXible)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
④ (T: Timely)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

- 미래대응기금 130개 사업(45.4조원) 중 신규사업은 79개, 계속사업은 51개 사업입니다.
- 또한 사업별 내용·지원대상·지원규모 등이 전면 개편되어 사실상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국토부)」은 '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을 목표로 실증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크게 늘리며 예산도 '26년 618억원에서 '27년 8,415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업(과기부)」도 미토스급 AI 등장으로 독자 AI 모델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를 위한 지원 규모를 '26년 300억원에서 '27년 8,000억원으로 늘리며 지원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 「아동기본수당(복지부)」은 기존 아동수당 사업의 단순 이관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반등 추세 지속을 위한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도입 과정에서 기존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확대하는 등 기존사업을 전면 재설계한 것입니다.

【 신설 회계·기금을 신규사업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 계속사업이라도 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회계·기금으로 묶어 편성하여야 예산편성 단계의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유사·중복 부분 점검 등은 물론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 금번에 새롭게 신설한 7개의 회계·기금도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금융성 기금인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수는 정책금융을 위한 국가 간접지원(금융성 기금)으로 일반 재정사업과 단순 비교 곤란
 : 총 8개 신규 사업 중 기금운용 관련 지출 5개(인건비, 경상운영비, 이자상환 등),
 융자, 출자, 대위변제 등 사업 지출 3개

< (참고) 신설 회계·기금별 신규사업 비율 >

구분		전체사업(a)	신규사업(b)	비율(b/a)
사업성 기금	미래대응기금	130개	79개	60.8%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46개	13개	28.3%
	공익신고장려기금	26개	5개	19.2%
	자원안보기금	44개	7개	15.9%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1개	3개	14.3%
	농업발전기금	52개	4개	7.7%
금융성 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8개	8개	100%

【 미래대응기금에 부실이 예상되는 사업이 포함되거나, 추가세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닙니다. 】

□ 미래대응기금은 물론 '27년 예산안 사업은 효과성, 집행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였고, 과거 집행률이 미진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는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공연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19~20세, 생애 1회 지원에서 청년 전체, 매년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도서·영화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집행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패스 사용 시 추가 결제액이 지원금의 41.1% 수준(문화예술위, '25년 패스사용 분석)

- 「농어촌 기본소득(농식품부)」은 반도체 등 산업 성장의 과실을 모든 지역·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시 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운용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 격차 완화,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구축을 도모하여 지역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하치승 (hcs017@korea.kr)